

민주주의 법제도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

이병주

(기독교법률가회 사무국장, 법률사무소 에스앤엘파트너스)

I. 법과 혁명과 기독교의 관계 - 국가 vs. 교회

1. 질문의 설정

가. 법과 혁명의 관계: Law and Revolution

- 질서를 유지하려는 법과 / 질서를 파괴하려는 혁명 사이의 대립과 협력

나. 혁명과 종교의 관계: Revolution and Religion

- 새 땅을 만들려는 혁명과 / 하늘을 추구하는 기독교 사이의 대립과 협력

다. 법과 종교의 관계: Law and Religion

- 땅의 일을 다루는 법과 / 하늘의 일을 다루는 기독교 사이의 대립과 협력

2. 기독교적 사회관/법률관의 재정립 필요성

가. 법과 혁명의 관계¹⁾ - 질서와 정의 / 안정과 변화 / 이상과 현실

- 혁명은 법체계(legal system)를 파괴하고 새 법체계를 만들면서, 법전통(legal tradition)을 유지하고 발전시킨다.
- 혁명은 법을 발전시키고 / 법은 혁명을 정착시킨다.

나. 종교와 혁명의 관계 - 세상과 기독교의 관계

- 세상 밖의 기독교 - 오거스틴의 두 왕국 이론 - 영적 왕국의 내세성 (비관+염세)
- 세상 위의 기독교 - 교황혁명의 두 칼 이론 - 기독교왕국의 현세적 통치 (낙관+통치)
- 세상 옆의 기독교 - 루터의 두 왕국 이론 + 소명론 (비관+타협)
 - 세상에는 구원이 없으나(교회≠세상의 것)
 - 세상에서 기독교인들은 (한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
- 세상 아래의 기독교 - 천년왕국주의, Marxism(세속적 종말론), 해방신학 (비관+혁명)

다. 종교개혁과 법의 관계 - 법적 배경 및 법적 함의 (Berman, *Law and Revolution*)

- 교황혁명 / Papal Reformation (12세기)
 - 서양 법전통(western legal tradition)의 기초 형성, 교회국가 - 최초의 근대국가 및 법체계 형성

1) Harold J. Berman, *Law and Revolution*, 1권 *The Formation of the Western Legal Traditio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3) 2권 *The Impact of the Protestant Reformations on the Western Legal Tradition* (2003) 참조

- 교회권력과 세속권력 간/ 복수의 세속권력들 사이의 재판권 분화 - 법의 발전과 법의 우위성 확보
- 독일혁명 - 루터 종교개혁 (16세기)
 - 교회국가의 폐지 - 지상의 권력으로 인한 교회와 신앙의 범죄/타락에 반발/예방
 - 세속국가에 권력 집중 - 지상권력의 이익, 근대적 세속국가/세속법체계 발전
- 영국혁명/청교도혁명 - 칼빈 종교개혁 (17세기)
 - 신앙의 자유/양심의 자유 - 근대 민주주의의 발전 (칼빈주의-귀족정적 장로민주주의)
 - 신흥유산계급과 왕권/귀족과의 대립- 절대군주정에서 입헌군주정/입헌민주주의로 발전

라. 문제와 과제

- 문제: 루터/칼빈 종교개혁과 법과의 근본적 갈등/대립
 - 루터 신학은 근본적으로 세상과 인간을 비관하고/ 하늘 왕국에서 받는 은혜에 대한 구원을 강조하고/ 땅의 왕국에서 전개되는 법과 행위의 의미를 부정
 - 루터 신학이 세상에서 법의 의미를 찾는 것은, 제한된 창조 교리에 기한 기독교인의 세상에 대한 제한적 책임론 - 소명론
- 문제: 루터의 구원론과 루터의 소명론 간의 절충적 부정합
 - 루터의 구원론에 들어있는 인간 비관이 루터의 소명론에는 잘 반영되어 있지 않다.
 - 군주권력에 대한 타협적/영합적 성격 - 군주(부모)와 신민(자녀) 간의 차별적 소명론 - 현실순종적 태도 (루터의 농민전쟁에 대한 반응)
- 과제: 교회와 사회/ 신앙과 법의 관계에 대한 종합적인 재정립이 필요하다
 - 루터/칼빈 사회신학의 역사적/정치적 제약을 인정할 필요 - 절대화/신성화 경계
 - 다양한 역사적/신앙적 관점 - 세상 밖의 기독교 / 세상 위의 기독교 / 세상 옆의 기독교 / 세상 아래의 기독교 - 의 장점과 단점들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종합할 필요
 - 영적 구원론의 핵심인 인간의 죄성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 소명론에서는 사라지는 비약/단절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 개신교의 사회적/법적 이해와 실천을 인간의 죄성/악에 대한 구원론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재구성/정립할 필요

II. 기독교인들의 세 가지 정치적 얼굴 -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의 한계²⁾

1. 세 가지 질문 (민주주의와 기독교의 관계에 대한)

- 가. 첫 번째 질문 - 민주주의에 위협이 되는 기독교?
- 나. 두 번째 질문 - 민주주의에 무지한 기독교?
- 다. 세 번째 질문 - 기독교인들에게 민주주의는 무엇인가?

2. 세 가지 시각(視覺) (민주주의와 기독교 간의)

- 가. 민주주의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비판(批判) - 정의를 모르고 불의를 지지하는 기독교

²⁾ 이하, 기독교법률가회 이병주 (2017). 박근혜 사태와 기독교의 문제 - 기독교인들에게 민주주의는 무엇인가. 대전:대장간 참조

- 나. 기독교의 민주주의에 대한 의심(疑心) - 인간과 사람이 만드는 모든 것들에 대한 의심
- 다. 기독교와 민주주의 간의 변증법적 대화(對話) - 인간에 대한 신뢰와 인간에 대한 불신

3. 세 가지 입장 (기독교인들의 정치에 대한) - “권세” / “경건” / “정의”

가.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기독교 ⇨ 권세

- 근거 - ‘권세에 복종하고 임금을 위해서 기도하라’ (로마서 13:1-2, 디모데전서 2:1-2)
- 질문 - 왕정과 민주주의의 차이?
 - 민주주의의 주권자(왕) = 국민, but 통치자에 복종을 강조

나. 정치적으로 무관심한 기독교 ⇨ 경건

- 근거 -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다’ (요한복음 18:36, 골로새서 3:2)
- 질문 - 공적 이웃사랑은 어디에? 이웃사랑 계명의 방기/경시,
 - 결과적으로는 영적인 (+현세적인) 자기사랑에 함몰

다.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기독교 ⇨ 정의

- 근거 -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 (아모스서 5:24, 누가복음 4:16-19)
- 질문 - 민주주의의 상대성: 정의감과 욕망의 공존
 - 인간의 이중성: 이웃사랑보다 더 강한 자기사랑
 - 모든 인간의 악과 불의: ‘불의한 인간들이 추구하는 사회적 정의 (searching for the justice by the unjust people)’라는 본질적 딜레마

4. 세 가지 신학 이론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 Church vs. State

가. 두 개의 칼 이론 (Two Sword Theory): 중세 가톨릭-기독교왕국(Christendom)

- 영적 칼 Spiritual Sword - 교황권력 분점
- 세속적 칼 Secular/Temporal Sword - 황제권력 분점
- 교회와 국가 둘 다 하나님의 대리인, 영적 칼이 좀 더 우위 (아퀴나스, 스콜라학파)

나. 두 개의 왕국 이론 (Two Kingdom Theory): 종교개혁-루터와 독일영주 (오거스틴)

- 영적 왕국 Spiritual Kingdom - 하나님의 나라/내세에 도래 (not 현세의 교회)
- 세속 왕국 Secular Kingdom - 현세의 국가, 세속국가 - 현세의 권력 집중

다. 천년왕국주의 (Millennialism): 소수파/ 민중적 기독교

- 영적 천년왕국주의 - 토마스 뮌저, 16세기 독일 농민전쟁
- 세속적 천년왕국주의 - Marxism
- 현대 - 해방신학/흑인신학/민중신학 계열

5. 민주주의에 대한 세 가지 기독교적 이해의 객관적 한계

가. 민주주의에 대한 구체성 부족

- ‘권세’를 존중한다고 ⇨ 민주주의 시대에 통치자의 왕권을 옹호하거나,
- ‘경건’을 강조하면서 ⇨ 인간의 삶의 조건과 억압에 관한 민주주의 사회와 전제왕정/식민지 배/독재정치 사회 간의 피눈물어린 차이를 부정하거나,
- ‘정의’를 추구하는 길에서 ⇨ 전제왕권의 절대적 불의와 선거로 선출되는 민주주의 권력의

상대적 불의 간의 차이를 현실적으로 구분하지 못하는 잘못과 한계

나. 성경적 총체성 결여

- 보수적 입장의 '권세'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적 강령이라고 하기 어렵고,
- 비정치적 입장의 '경건'은 하나님 사랑은 하지만 이웃사랑을 놓치고 있으며,
- 진보적 입장의 '정의'는 이웃사랑을 통한 인간의 희망을 추구하지만 자기사랑에 붙잡힌 인간의 절망적인 측면을 경시한다는 한계

III. 세 가지 인생 강령으로 주석하는 기독교와 민주주의 - 민주주의에 대한 성경적 이해

1. 민주주의에 대한 성경적 이해의 기본 강령

가. 성경의 세 가지 인생 강령

- 이웃사랑의 이중대계명 (자기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 십계명의 두 번째 돌판 - 인생 계명들 (5~10계명)
- 주기도문의 인생 기도 (4-6절)

나. 민주주의에 대한 여덟 가지 성경적 명제

- 자기사랑과 이웃사랑의 변증법 - 이웃사랑은 타인의 자기사랑을 존중하는 것
- 인간의 세 가지 자기사랑 - 개인적 자기사랑 / 계층적 자기사랑 / 국가적 자기사랑
- 자기사랑의 자유와 평등 - 이웃사랑의 강령과 민주주의의 원리
- 인간의 집단적 자기사랑과 집단적 폭력 - 제6계명과 정치적 민주주의
- 자기사랑의 왜곡과 공적 거짓 - 제9계명과 법적 민주주의
- 자기사랑과 일용할 양식 - 제8계명과 경제적 민주주의 (+ 주기도문의 양식기도)
- 자기사랑과 권력의 본성 - 주기도문과 민주주의의 악
- 자기사랑과 공적 시험 - 주기도문과 민주주의를 위한 시험과 싸움

2. 이웃사랑의 대계명과 자기사랑의 대원칙 - 민주주의의 기본원리(基本原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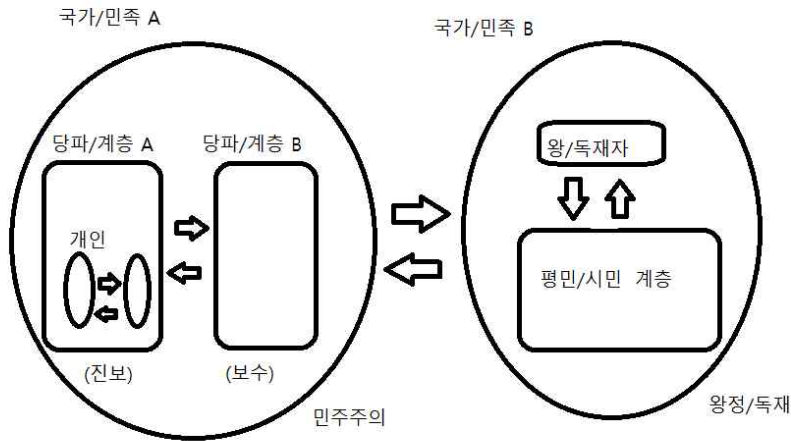
가. 자기사랑의 자유와 평등 - 특권적 자기사랑을 배척하는 / 민주주의의 이웃사랑

나. '공적(公的) 이웃사랑'과 민주주의 - 세금과 복지제도를 통한 '공적 자기부인'

다. 인간의 세 가지 자기사랑 - '집단적 자기사랑'과 민주주의의 기본구조(基本構造)

- 자기사랑 ⊃ 이웃사랑 : 인간의 현실 - 공산주의의 실패 원인
- 개인적 자기사랑 ⇔ 인생의 기본적 책임 - 민주주의의 생활적 기초(基礎)
- 집단적 자기사랑 ⇔ 인생의 기본적 상황 - 민주주의와 인간의 조건(條件)
- 국가적 자기사랑 속의 계층적 자기사랑 ⇔ 시민적 민주주의의 발생(發生)
 - ① 국가적이고 민족적인 자기사랑 - 왕정/독재/전체주의의 주장
 - ② 당파적이고 계층적인 자기사랑의 발현 - 시민적 민주주의의 탄생 (프랑스혁명 이후)

4. 십계명 두 번째 돌판의 인생 계명 - 인간의 현실(現實)과 민주주의의 필요성(必要性)



가. 인간의 자기사랑과 폭력(暴力) - 제6계명과 정치적 민주주의

- 살인하지 말라 + 욕하지 말라 = 다른 사람을 해치지 말라
(너무 쉬운 계명과 너무 어려운 계명)
-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이유 - 인간의 자기사랑
- 인간의 세 가지 자기사랑 ⇔ 세상의 세 가지 폭력과 악
 - ① 개인적 자기사랑의 폭력과 악 - 생존(生存)을 위한 개인적 경쟁과 싸움
 - ② 당파적/계층적인 집단적 자기사랑의 폭력과 악- 상대 집단에 대한 제거의 욕망/내전
 - ③ 국가적/민족적인 집단적 자기사랑의 폭력과 악 - 국가 간의 충돌과 전쟁(戰爭)
- 민주주의 - 집단적 자기사랑의 폭력성에 대한 제6계명의 처방(處方)
 - ① 민주주의의 '선거'- 집단적 자기사랑 간의 '평화적인 전쟁' / 원수를 덜 미워하는 것
⇔ 총알(Bullet)로 싸우는 폭력적 대립을 투표지(Ballot)로 싸우는 평화적 대립으로
 - ② 민주주의의 내부적 긴장(緊張) - 자기사랑의 수직성(개인)과 이웃사랑의 수평성(집단)

나. 자기사랑의 왜곡(歪曲)과 공적 거짓 - 제9계명과 민주주의의 공적 심판(審判)

- 사적 거짓말의 세계 - 상대적으로 해악이 크지 않음
- 거짓 증언과 거짓 심판 (사적 거짓말 ⇔ 공적 거짓말)
- 공적 거짓말의 세계 - '지상(地上)의 심판권자'들이 행하는 거짓 심판(審判)
- 공직자의 개인적/당파적 자기사랑으로 인한 왜곡 - 공적 거짓 심판과 공적 기능의 실패
- 민주주의 - '공적 거짓 심판(審判)'에 대한 제9계명의 처방(處方)
 - 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 개인적/당파적인 자기사랑의 제도적 부인(否認)
 - ② 제9계명: 권력자의 거짓에 대한 기독교적 경고 - 지상의 심판자에 대한 하늘의 심판
 - ③ 정치적/종교적 선악과(善惡果)에 대한 경고 - '반OOO' 기독교 운동들의 문제

다. 자기사랑의 생존(生存)과 일용할 양식 - 제8계명과 경제적 민주주의

- 먹고 사는 일의 중요성

- 성경의 두 가지 경제 강령 - 일용할 양식 / 흠치지 말라
- 우리의 양식 = 나의 양식(권리) + 타인의 양식(권리) ⇔ 흠치지 말라 (빼앗지 말라)
- 사적인 인생과 일용할 양식 - (개인적으로) 땅과 직장과 시장을 통해 먹고사는 일
 - ① ‘토지(土地)’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인생
 - ② ‘학교(學校)’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능력’을 구하는 인생
 - ③ ‘직장(職場)’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인생
 - ④ ‘시장(市場)’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인생
 - ⑤ 사적 인생과 공적 인생
 - = 현실에 적응하는 ‘해석론(解釋論)적 인생’과 현실을 바꾸는 ‘입법론(立法論)적 인생’
- 민주주의와 일용할 양식 - 집단적으로 ‘광장(廣場)’을 통해 먹고사는 일 (입법론적 인생)
 - ① 민주주의와 농민들의 일용할 양식
 - ② 민주주의와 기업가들의 일용할 양식
 - ③ 민주주의와 노동자들의 일용할 양식
 - ④ 민주주의와 ‘팔아야 사는 사람’들의 일용할 양식
 - 21세기 보수와 진보의 고민과 혼란 - 미국의 트럼프 현상
 - 개인적으로 팔지 못하는 사람들(노동자)의 비극과 vs. 집단적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소비자)의 경제적 권력 및 정치적 권력의 가능성
 - ⑤ 민주주의가 밥을 ‘금방’ 먹여주지는 않는다는 사실

4. 결론: 주기도문의 세 가지 인생 기도 - 민주주의의 기도와 민주주의적 실천의 원리
 - 우리를 공적(公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공적(公的) 악에서 구하옵소서

가. 우리의 일용할 양식(糧食)을 위한 기도

- ‘나의 양식’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 - 개인적 인생의 자기책임
- ‘타인(남)과 공동체(우리)의 양식’을 존중하는 사회적 인생의 상호적 의무도 함께 감당
- 하나님의 복으로 나/가족이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신앙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그냥 이기주의

나. 우리가 서로의 빚(채무)을 면제하고 용서하는 기도

- 민주주의와 인간의 상호적 권리의무관계에 관한 진지한 묵상과 해명을 요구
-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약(언약)과 권리와 의무가 없이는 세상이 굴러가지 않음
 - ⇔ 자본주의의 민법 = 자기사랑의 권리 보장(물권법) + 이웃사랑의 의무 이행(채권법)
- 정치적 제도/경제적 생활/종교기관에서도 먼저 권리/의무의 소재와 내용을 분명히 해야
 - ⇔ 연후에 비로소 권리자(채권자)가 의무자(채무자)를 온전하게 용서/양보하는 것이 가능
- 권리의무의 소재가 분명치 않은 몽롱한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용서를 남발하면
 - ⇔ 나와 남이 저지르는 공적이고 사적인 악을 그대로 방치하고
 - ⇔ 더 많은 사람을 공적/사적 시험에 빠지게 함 (맹목적 용서의 악)

다. 우리를 시험(試驗)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 사람이 드는 시험 - 개인적인 사적(私的) 시험 + 집단적인 공적(公的) 시험
-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 소극적으로 기도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시험에

맞서 감당하고 싸워야 함

- 사적인 시험에는 개인적으로 맞서 싸우고 씀,
- 공적인 시험에는 집단적으로 맞서 싸우고 씀해야 함 - “민주주의의 시험과 싸움”

라. 다만 악(惡)에서 구하옵소서

- 모든 인간은 불의하므로, 모든 권력은 권력을 행사하는 자의 악을 필연적으로 만들어냄
- 사적 권력은 사적 악을 만들어내고, 공적 권력은 공적 악을 만들어냄
- 권력이 있는 사람의 고의는 알면서 악행을 하지만, 권력이 있는 사람의 실수와 무지는 모르면서 더 큰 악행을 저지름
- 다른 사람과 다른 집단에서 나오는 사적이고 공적인 악에 대항해서 싸우고,
- 나와 우리 집단에서 나오는 사적이고 공적인 악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고치는 것,
☞ 민주주의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의 악에 대한 씀과 싸움의 책임”

마. 민주주의를 위한 기도(祈禱)

- 민주주의가 우리에게 이웃사랑과 정의로 충만한 ‘이생의 천국’을 만들어 줄 수는 없으나,
- 민주주의는 우리가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자기사랑의 악과 폭력으로 충만한 ‘이생의 지옥’에서 벗어나는 일을 크게 도와줄 수 있음
- 누가 우리에게 천국이 아니라면 지옥에서 살아도 좋다고 말하겠는가? ☞ 우리는 이생의 천국에서 살지는 못하더라도 이생의 지옥에서는 벗어나기를 간절히 소망
-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을 따라, 애통한 마음으로, 인간의 현실을 고민하고 민주주의를 목상하면서, 책임감 있게,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해야
- “우리를 공적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공적 악으로부터 구하옵소서!”
(Lead us not into public temptation and Deliver us from the public evil.)

(끝)

「민주주의 법제도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 토론문

김용훈
(상명대 교수)

1. 민주주의의 역사적 의의와 중요성

1. 민주주의의 의의와 대의제의 등장 배경

민주주의의 이론·사상적인 연원을 사회계약론에서 찾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담론은 역사적 부침과 함께 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이는 통치 정당성의 근원을 역전시켰다는 점에서¹⁾ 그 함의 역시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시민혁명을 통한 군주주권의 불식과 국민주권의 등장 이로 말미암는 민주주의 이념의 보편화는 인류의 역사에 있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정표를 세웠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고 의사결정권으로 대변되는 주권의 국민으로의 귀속은 직접 민주주의를 채택하여야 하지만 여러 사정²⁾ 상 혁명 초기 대의제 민주주의를 채택하게 되었고³⁾ 이후 이는 일반화된다. 즉 민주주의이념에 충실하자면 직접민주주의원리를 채택하는 것이 논리적이라는 점에서 국민의 자기통치, 즉 자동성의 원리를 고집하여야 하는 것이 맞다.⁴⁾ 하지만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국정을 담당할 수 없는 현실에서 국민을 대신하여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된 국회(의회)에 국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국가의사의 결정원리이자 정치조직원리”인 대의제도가⁵⁾ 현재는 보다 일반적인 통치형태이다.⁶⁾

2. 대의제의 특징과 주요 쟁점

대의제는 언급한 바와 같이 대표자의 통치에 기반한 통치형태로서 이의 구성요소로 다음을 드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다.

- 1) 정종섭, 헌법연구(1), 철학과현실사, 1994, 232면.
- 2) 흔히 장소의 한계 및 인구의 과다로 말미암아 직접 통치의 어려움을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의사와 이익의 불일치로 말미암음에 따른 객관적인 제3자에 의한 국가의사결정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14. 참고.
- 3) 이는 물론 E.J. Sieyes의 이론에 근거에 힘입은 바 크다. 당시 시에스는 “제3신분이란 무엇인가?”라는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혁명을 역사적인 필연으로 상정하기도 하였다.

국민이란 무엇인가? 동일한 입법부에 의하여 대표되며, 공통의 법률 하에서 살아가는 구성원들의 집단이다... 특권 신분들은 시대와 필연의 합작인 혁명에 눈을 감아버릴 테지만 헛된 일이다. 아무리 그래도 혁명은 역시 현실인 것이다(E. J. Sieyes(박인수 역), 제3신분이란 무엇인가, 책세상, 2009).

- 4)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5, 327면.
- 5)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5, 327면.
- 6) 물론 에스메낭이 주장한 반(半)대표제에 따라 국민투표제도를 통하여 직접민주주의 요소가 가미되고 있어서(우리는 헌법 제72조의 임의적 국민투표와 제130조에 입각한 필수적 국민투표) 국민주권과 인민주권 간 조화로운 통치 방식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원칙적인 통치형식은 대의제라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i) 국민과 국민대표자의 분리, ii) 국가의사결정권과 통치기관(대표기관)구성권의 분리, iii) 선거에 의한 국민대표자의 선출, iv) 전체국민의 대표로서의 국가의사결정권자, v) 명령적 위임의 배제, vi) 국민의 전체이익과 추정적 의사의 우선, vii) 국가의사결정에 대한 법적 책임의 면제” 등이 제시되고 있다.⁷⁾

기실 대의제와 군주제가 완전히 상이하다고 볼 수만은 없다고 생각된다. 양자 모두 치자와 피치자의 불일치를 전제로 국민 또는 인민은 누군가의 통치를 받는다고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의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국가의사결정권과 통치기관(대표기관)구성권을 구별하고 후자를 국민에게 부여한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권력에 대한 정당성 부여방향성이 역전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따라서 대의제를 운영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 대표자의 자질과 역량이라고 보아야 한다. 선출된 대표자는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여 결정할 수 있는 자질 및 의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⁸⁾ 이에 따라 대표자로 가장 현명한 인사(the wisest officials)를 선출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⁹⁾ 결국 대의제의 성패 여부는 대표자의 역량과 자질에 상당 정도 기대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간접 민주정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공무원 선거권은 국민의 참정권 중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주장¹⁰⁾에서와 같이 대의제의 운영에 있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선거제도라고 보아야 한다. 여하튼 대표자에 대한 신뢰를 일응 상징하고 있는 대의제는 자연스럽게 정책결정권을 모두 대표자에게 부여하는 다시 말해 법적 책임을 대표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는 자유위임 법리를 도입하게 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¹¹⁾

II. 통치 혹은 의사결정 방식의 성서적 원리

그렇다면 이와 같은 대의제 원리, 보다 거시적인 수준에서의 민주주의 원리와 기독교적 교리와의 상관관계를 찾아낼 수 있을 까? 모든 사건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고려하면 당연히 그러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을 인간의 사고와 논리로 나아가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지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다음의 성경에서의 사건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1. 성경에서의 의사결정 방식과 함의

성경에서의 여러 사건을 묵상하면 당해 사건에서 민주주의의 원리를 발견하는 것이 어려운 것

7)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14, 905-909면. 권민지 외 5인, “공직선거법상 연령에 따른 선거권 제한에 대한 비판: 헌법재판소 결정을 중심으로”, 공익과 인권 통권 제14호, 2014년, 383면에서 재인용.

8) Hannah F. Pitkin, The Concept of Represen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7, pp. 209-210. 김용훈, “탄핵심판제도의 입헌 취지 및 심리 방향성 소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결정문을 소재로 -”, 법학논총 제37호(2017.1), 23면에서 재인용.

9) Alan Rosenthal, The Decline of Representative Democracy, CQ Press, 1998, p. 6. 김용훈, “탄핵심판제도의 입헌 취지 및 심리 방향성 소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결정문을 소재로 -”, 법학논총 제37호(2017.1), 23면에서 재인용.

10) 최우정, 기본권론, 준커뮤니케이션즈, 2016, 526면.

11) Hannah F. Pitkin, The Concept of Represen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7, pp. 145-146. 김용훈, “탄핵심판제도의 입헌 취지 및 심리 방향성 소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결정문을 소재로 -”, 법학논총 제37호(2017.1), 24면에서 재인용.

이 사실이다. 특히 민주주의라는 것이 의사결정방식에 대한 담론이라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더욱 그런 것 같다.

① 아합의 죽음 - 미가야

아합이 아람과의 전쟁을 준비하는 중 전쟁의 가부 혹은 결과를 알기 위하여 선지자에게 문의하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영을 다른 400명의 거짓선지자의 입에 두셔서 아합 왕이 전쟁에 출전하고 죽음에 이르도록 하신다.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미가야를 잡아 부운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로 먹이라 하라(열왕기상 22:26~27).

②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 - 요나

요나는 앗수르를 너무 증오한 나머지 앗수르에 대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명령, 즉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게 된다. 이에 풍랑을 만난 선박에 있었던 선원과 승객들이 누구에게 풍랑의 원인이 있는가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 제비뽑기를 하고 이를 통하여 요나를 특정하게 된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당한지라(요나 1장 7절).

③ 사도의 임명 - 맛디아

가롯 유다의 자살로 초대 교회 성도들은 새로운 사도를 임명하기를 원했는데 이 역시 제비뽑기를 통하여 맛디아와 요셉 중 맛디아를 사도로 임명하게 된다.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못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옵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맛디아를 얻으니 저가 열 한 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사도행전 1:24~26)

이렇듯 성서적인 원리 혹은 가치는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2. 기독교적 가치와 민주주의

실제로 성경에서의 하나님의 뜻의 실현 혹은 의사결정방식 양상은 상당히 단호하고 일방향적이라고 일응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 그리고 이를 대언하는 선지자의 판단과 결정이 우선시되고 있으며 어떠한 숙의(deliberation) 과정이 보다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는 헌법의 수호자로 라이히 대통령을 제시하였던 칼 슈미트의 주장 그리고 현

재 독임제 행정관청과도 약간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이 역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선택을 전제로¹²⁾ 정책결정이 도모된다는 점에서 정확히 들어 맞는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고 성경에서의 가치와 민주주의가 전혀 무관하다고만 할 수는 없을 듯하다. 민주주의라는 개념과 그의 구체적인 운영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일례로 민주주의를 전제로 선거가 민주적인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품고 다른 방식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주장도 종종 눈에 띄는 것이 사실이기도 하다.¹³⁾ 즉 민주주의의 개념을 넓게 상정한다면 성경적 가치와 민주주의의 주요 가치 간 융화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¹⁴⁾¹⁵⁾

3. 민주주의적 가치의 현 교회에서의 함의

물론 절차적인 형식적인 면모에만 민주주의 관련 논의를 집중하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현 민주주의 역시 인본주의라는 가치에 입각하여 발전해 온 것이 사실이지만 자칫 이를 절차적인 측면에만 집중한다면 형식적 민주주의 혹은 절대적 가치 상대주의로 말미암는 비극을 그대로 답습할 수 있기 때문에 당해 입장은 지양되어야 한다. 민주주의 발전과정이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하에 있었다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여하튼 민주주의의 의사결정과정에 있어서 역시 성경적 가치 혹은 정의가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인간 개인의 양심에 의존하는 윤리적이고 실천적 사유는 정의의 문제에 향해 있어야 하는 것이고¹⁶⁾ 이는 결국 성경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현재의 민주주의 법제도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는 결국 현 민주주의에 대한 주요 담론을 제공하고 있는 방어적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와도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을 듯하다.¹⁷⁾ 다음의 논변 역시 당해 사항을 상

12) 칼 슈미트 역시 라이히 대통령의 경우 전체 독일 인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이 되기 때문에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강조한 바 있다. 칼 슈미트(김효전 역), 헌법의 수호자, 법문사, 2000, 218면.

13) 실제로 아리스토텔레스는 “민주정의 기본적인 원칙은 민중이 통치자이자 피통치자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이 두 위치를 번갈아 가며 차지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었다....“자유eleutheria의 한 형태는 다스리고 또 다스림을 받는 것을 번갈아 하는 것이다en merei archethai kai archen.”라고 언급한 바 있다. Aristotle, Politics, VI, 2, 1317a 40-1317b2. 버나드 마넵(곽준혁 옮김), 선거는 민주적인가 - 현대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후마니타스, 46면에서 재인용. 또한 그는 “자유는 통치하는 것과 통치받는 것을 번갈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공동체 모든 사람이 중요한 나랏일을 담당할 수 있는 동일한 기회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였고 이에 따라 시민은 나라에 종속된 존재가 아닌 정부를 실제로 만들어 가는 존재로 상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아테네 시민들은 추천제를 도입했던 것이고 이는 결국 엘리트에 대한 깊은 불신에 근거한 것이었다. 자원 배분을 엘리트가 결정하면 결국 자신들이 지배받게 되리라 생각했던 것이다. 유규오 외,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2017, 33면(일부 수정).

14) 일례로 루소는 “... 인민들이 특별한 견해를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한하기 위해서건, 아니면 공직 배분에 있어 편파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건, 추천은 민주주의에 적당한 선발 방식이다. 왜냐하면 추천은 어떤 특수 의지particular will의 개입 없이 행정직을 배정하기 때문이다.”. J. J. Rousseau, Social Contract, 4권 3장. 버나드 마넵(곽준혁 옮김), 선거는 민주적인가 - 현대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후마니타스, 103면에서 재인용.

15) 이렇듯 기독교적 가치에 입각한 민주주의에 대한 접근은 절차에 집중하여 도모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일례로 루터 역시 개인의 선택에 의존하는 독재보다는 다수에 의한 조직화된 독재가 그나마 낫다는 주장을 했다는 것은(로버트 코크란 외(이일 옮김), 그리스도와 법, IvpCLF, 2015, 274~275) 기독교적 가치에 기반한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을 현시하고 있다고 보인다.

16) 로버트 코크란 외(이일 옮김), 그리스도와 법, IvpCLF, 2015, 273면

17) 방어적 민주주의에 대한 일반적인 조망은 다음이 일반적인 것으로 보인다.

민주주의의 가치상대주의적 관용이 결과적으로 민주주의 그 자체를 말살시켰다는 반성적 성찰에서 비롯되었다. 이에 방어적 민주주의는 종래 민주주의의 가치상대주의적 관용에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인

당히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의 형성과 개혁에서 그리스도인은 열심히 법을 집행하려는 자들을 지지하며 권위를 존중하는 태도를 참여해야 하며, 동시에 법이 계획되고 해석되고 집행되는 모든 순간에 정의롭지 않을 경우 가기에 대해 끊임없이 정직하게 비판적이어야 한다.¹⁸⁾

이와 같은 관련 담론은 현재 우리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의사결정과정에서의 부조리와 납득하기 힘든 결정에 대한 고민거리를 직접적으로 던져 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즉 “사실상 대안을 정의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권력수단이다. ... 정치가 무엇에 관한 것이냐를 결정하는 사람이 나라를 운영한다. 왜냐하면 대안의 정의는 갈등의 선택이 권력을 배분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모든 갈등은 혼란스러운 것이라 할 수 있다.”와 같은 주장에서와 같이¹⁹⁾ 현 우리 사회에서의 결정권을 일반 국민들이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에 대한 결정이 정의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감시는 기독교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²⁰⁾

III. 발표문에 대한 질의

발표문의 경우 민주주의 법제도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를 도모하는 데에 있어 역사적이고 이론적인 접근 나아가 매우 심오한 사항을 다루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토론자는 이에 대하여 과묵한 탓에 일단 발표문을 읽어 가면서 들었던 의문이나 생각들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1. 민주주의와 기독교적 가치 간 연계

발표문의 경우 기독교의 가치와 민주주의 간 관계 정립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주의의 선거와의 관련성을 언급한 부분이 두드러지는 것 같다. 그런데 성경적인 가치와 세속적인 제도(선거제도를 비롯한)와는 어느 정도의 거리가 있는 것이 아닌 가 한다. 예수님의 말씀²¹⁾ 나아가 사무엘의 행적²²⁾에서 당해 사항은 상당히 분명히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성경적 가치와 세속적 제도 간 관련성 혹은 연계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인 궁금하다.

2. 기타 질의 사항

(1) 민주주의와 기독교 간 상호 관계를 중심으로

정하고, 민주주의는 가치지향적이고 가치구속적인 민주주의일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7, 150면).

18) 로버트 코크란 외(이일 옮김), 그리스도와 법, IvpCLF, 2015, 277면.

19) E. E 샤프 슈나이더(현재호·박수형 옮김), 절반의 인민주권, 후마니타스, 2014, 123면.

20) 발표문 p. 3에서의 ‘불의한 인간들이 추구하는 사회적 정의’라는 본질적 딜레마를 극복하도록 하는 하나의 계기도 마련해 줄 수 있지 않나 한다.

21) 요한복음 17:15 -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22) 다니엘 6:10 -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대로 하루 세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발표문, p. 3. 기독교와 민주주의 간의 변증법적 대화를 제시하고 있는데, 성경은 기본적으로 인간을 죄인으로 상정하고 있다(롬 3:23). “인간에 대한 신뢰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나아가 그 내용이 궁금하다.

발표문, p. 4. 전제 왕권의 절대적 불의와 민주주의 권력 간의 상대적 불의의 근거는 무엇인지 궁금하다. 기독교적 기준에 따르면 모든 권력은 불의하다고 보아야 하고 전제왕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또한 절대적 불의라고 할 수 있을지 ...

(2) 권리와 의무의 확정 관련

발표문, p. 7에서는 “정치적 제도/경제적 생활/종교기관에서도 먼저 권리/의무의 소재와 내용을 분명히 해야”한다는 언급을 하고 있는데 세속적인 권리·의무와 성경에서의 그것은 죄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듯 확연히 다르다고 생각한다(관원에 대한 왕의 빛 탕감 비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 등). 이를 동일선상에 두고 논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3) 시험에 대한 태도

발표문, p. 7에서는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소극적으로 기도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시험에 맞서 감당하고 싸워야 함”이라는 언급을 하고 있는데 시험과 관련하여 성경에서는 test와 temptation 모두 피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test: 고린도전서 10:13; temptation: 잠언 5:8). 발표문과 같이 보아야 하는 근거 혹은 성서적 실익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4) 민주주의의 역할

발표문, p. 8에서는 “민주주의는 우리가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자기사랑의 악과 폭력으로 충만한 ‘이생의 지옥’에서 벗어나는 일을 크게 도와줄 수 있음”이라는 언급을 하고 있는데, 발표문과 같이 보아야 하는 근거 혹은 성서적 실익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민주주의는 형식적 합법성의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발표문의 언급과 관련 민주주의의 역할 혹은 위상에 대한 보완 설명이 요구된다고 생각한다.